

고린도전서 15 장 35 절-58 절: 몸의 부활

35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36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37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42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43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44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45 성경에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49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52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박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54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고 그 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55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57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58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1. 35 절은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으로 세번째 '몸의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 a.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다.
 - b.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라는 질문은 이전 질문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에서 더 나아가서, 죽은 사람이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2. 36-38 절은 사도 바울은 '씨앗'을 예를 들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그것이 땅 속에 묻혀져서 '씨의 형태'는 죽고, 장차 생겨날 몸, 즉 '나무'나 '곡식' 등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 a.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3. 39-44 절은 자세하게 부활의 몸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리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드셨고, 도마에게 보이신 상처도 가진 몸이었지만,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으셨습니다.
4. 45-49 절은 신령한 몸인 부활의 몸에 관하여 첫 사람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한 사망이 우리에게 이른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설명합니다.

5. 50-54 절은 나팔 부는 마지막 날에 즉 최후의 심판 날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특징은 첫째, '눈 깜박할 사이'에 일어나며, 둘째, '홀연히' 그 부활이 일어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 a. 사도바울은 이 변화(영어로 transform)를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빌 3:21)
 - b. 사도바울은 이 신적 능력인 변화를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1)선하시고 (2)기뻐하시고 (3)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롬 12:2)
6. 54 절 후반절-56 절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와 호세야서를 인용하면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만 드러나게 되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소망을 주심으로, 사도 바울은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7. 57 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 58 절은 부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바울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 a. 부활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의 삶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들어 있지만
 - b. (1)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 c. (2)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일들 중에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며, 그것도 '더욱 많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 d.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9.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